



동일화보

주체101(2012)년

호 외

이명박정권
심판!

민심은 응당한 심판을 내릴것이다

남조선에서 《국회의원선거》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는 지금 《새누리당》 것들이 리명박심판투쟁의 대상에서 벗어나보려고 별의별 오그랑수를 다 쓰고 있다.

《새누리당》이라는 괴이쩍은 이름으로 당명을 바꾸어치운데 이어 그 무슨 《쇄신》과 《정강정책개정》에 대해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더니 최근에는 리명박역도가 《새누리당》을 위해서라도 탈당해야 한다고 비린청을 돈구고있다.

한편으론 《새누리당》의 거두 박근혜를 비롯한 어중이떠중이들이 여기저기를 쏘다니며 《민생을 쫓겠다.》느니,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느니 요사를 떨면서 마치 민생문제해결에 관심이나 있는듯이 뉘새를 피워대고있다.

지금 《새누리당》 것들이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리명박과의 《차별화》놀음에 광분하는것은 분노한 민심을 잠재우고 어떻게 하나 이번 《국회의원선거》를 무난히 치르어 년말에 있게 될 《대통령선거》에서 재집권을 이루어보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민심은 이번 《국회의원선거》를 계기로 보수패당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릴것을 다짐하고있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새누리당》 것들은 리명박역도의 반인민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통일적인 정책의 하수인, 돌격대로 나서 민생을 도란에 빠뜨리고 군부독재시기의 극악한 폭압체계를 되살려놓았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부정하고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었으며 반공화국대결소동을 미친듯이 벌리면서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접경으로까지 몰아갔다.

최근 박근혜가 군복까지 입고 서해 5개섬일대를 싸다니며 전쟁열을 고취하고 《핵안전수뇌자회의》를 계기로 《북의 핵보유를 용납할수 없다.》고 망발한 사실을 놓고서도 《새누리당》 것들의 대결광증이 어느정도인가 하는것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최는 지은데로 간다고 《새누리당》 것들이 갖은 오그랑수로 재집권의 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고 발악해도 남조선인민들은 그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윤금철



보수패당을 기어이 심판할 의지에 넘쳐있는 각계층인민들



리명박패당의 반인민적악정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불평등한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 리명박의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대회참가자들





보수패당의 노동운동탄압을 규탄하는 남조선노동자들



↑→반공화국핵소동에 광 분하고있는 리명박패당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색갈론》의 명수들

최근 통합진보당의 이정희대표가 《경기동부련합》이라는 《친북좌파조직》의 영향력아래에 있다는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의 주장이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새누리당》의 주장대로라면 통합진보당이라는 일개 정당의 대표가 《친북좌파세력》에 의해 조종되고있다는것인데 황당하기 그지없다.

통합진보당으로 말하면 남조선에서 일정한 사회적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이런 당의 대표를 그 무슨 《친북좌파조직》 성원으로 매도해나서는것은 결국 통합진보당자체를 《친북좌파세력》으로 몰아가려는 매우 위험한 처사로서 모략과 권모술수에 이풀이 난 《새누리당》만이 할수 있는것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통합진보당은 이번 《총선》을 현 보수집권세력을 심판하는 중대한 계기로 삼고 민주통합당과 함께 연대련합을 주장하고 실천해나가고있다.

이것을 눈에 둔 가시처럼 여기면서 어떻게 하나 파탄시켜보자는것이 《새누리당》의 속심이다. 그래서 들고나온것이 캐캐묵은 《색갈론》이다.

지금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과의 연대가 《국민기만》이라느니, 민주통합당이 《종북좌파세력》에게 끌려다니고있다느니 하며 통합진보당을 《친북좌파세력》으로 매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하지만 그따위 《색갈론》에 귀를 기울일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새누리당》이 력대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친북좌파세력》으로 몰아대고 대결과 불신만을 추구하여온 극악한 반공화국대결집단이라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런 동족대결당의 집권으로 얻어진것이란 북남관계의 파탄과 갈수록 엄중해지는 전쟁위험뿐이라는것도 잘 알고있다.

결국 《새누리당》이 들고다니는 《색갈론》은 도리어 《친미사대매국당》, 《동족대결당》으로서의 저들의 추악한 정체를 스스로 드러낼뿐이다.

이제 민족반역당에게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날은 멀지 않았다.

박철남



민주세력을 구속하고 탄압하는 보수패당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의 청년학생들

다가오는 《4.11총선》에서



리명박역적패당을 심판하자!